

“현재 적정의견도 미래엔 분식될지도?” 기업들 회계멘붕

원칙 뒤에 숨은 독바... IFRS는 ‘기업 옥죄는 나쁜회계’

혼돈의 회계

4 부메랑 된 IF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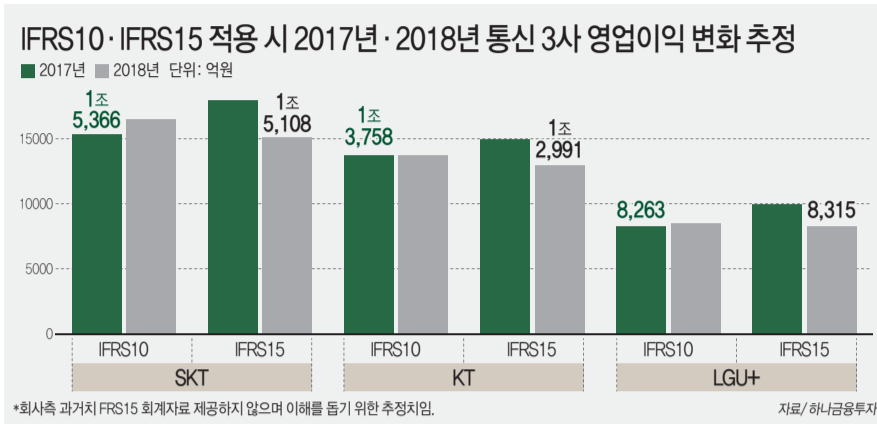
이통사·항공·보험사 실적
기업 실제 펀더멘털과 무관

회계기준 변경따라 들쭉날쭉
“어디서 문제 터질지 몰라”

국제회계기준(IFRS)은 감사인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소지가 높다는 우려 때문에 해마다 새로운 기준이 생겨나고 있다. 네거티브 방식의 원칙주의를 따르는 IFRS가 오히려 기업에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켜야 할 것을 일일이 나열(포지티브 방식)하지 않고 원칙만 정하면서 기업이 나 감사인의 자의적 해석과 숨김이 일상화되고 있다.

특히 매년 강화되는 새 회계기준 때문에 실제 기업의 펀더멘털(기초체력)과는 무관하게 재무제표가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의 과거 재무제표가 언제 터질 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는 것.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9103억원으로 전년보다 11.6% 감소했다. 새 국제회계처리기준(IFRS 15) 도입에 따라 지난해까지 일시에 반영했던 단말기 매출과 판매장려금이 올해부터는 기대가입기간에 맞춰 나눠 반영된 영향이다.

업계는 기존에 사용되던 회계기준(IFRS10)과 비교해 올해 이통사 3사의 영업이익이 총 2600억원 줄어드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IFRS 16이 도입된다. 이는 리스 자산과 부채를 모두 회계장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회계기준이

다. 기존에는 리스 거래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해 금융리스만을 자산과 부채로 계상해 왔다.

이는 다수의 항공기를 운용리스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항공업계의 부채비율 상승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IFRS16이 적용될 경우

항공업계의 부채비율이 크게는 20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2021년 도입되는 IFRS 17은 보험사를 대상으로 하는 회계기준이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을 계약시점의 원가가 아니라 매 결산시 시장금리를 반영한 시가로 평가하는 게 주요 변동사항이다. 이에 생명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RBC) 악화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같은 회계기준에도 더 간단한 해석이 요구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연구개발 자산화 논란에 휩싸인 바이오가 주요 사례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제약·바이오업체 10곳의 재무제표 특별감리에 들어갔다. 연구개발 자산화 비율의 적정성을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했다는 것은 해당 연구가 매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에

서다. 하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자산화한 비용을 모두 손상차손으로 떨궈야 한다. 지금까지는 감사인의 해석에 따라 연구개발비 자산화 허용범위가 달라졌다. 이번 금감원 감리 이후 자산화 기준에 명확성이 더해지면서 많은 제약·바이오업체가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다.

제약·바이오의 회계처리 강화 기조는 타 업종으로까지 전이되고 있다. 최근 기업공개(IPO)를 진행한 의료장비 업체인 제노레이 역시 증권보고서를 통해 높은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율이 ‘투자위험 요소’라고 기재했다.

이에 대해 한 회계사는 “회계기준이 점점 엄격해지면서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발생할 지 누구도 알 수 없다”면서 “현재의 적정의견이 앞으로 계속 적정임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손영미 기자 sonumij301@metroseoul.co.kr

외국인 부당이익 유출 사전차단 금감원, 현장조사권·특사경 도입

(특별사법경찰)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혁신방안

감독당국이 현장조사권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도입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혐의를 효과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다.

외국 감독기관과 연계해 소위 ‘검은머리 외국인’의 부당이익 유출을 차단하며,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경우 경영참여나 유상증자시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최근 불공정거래가 지능화·조직화되는 추세를 감안해 현장조사권과 디지털포렌식 장비, 특사경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장조사권은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등의 혐의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는 권한으로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디지털기기(핸드폰 등)에 저장된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압수수색과 통신기록 조회 등이 가능하도록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지명하는 방안도 도입할 방침이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금감원 직원의 특사경 추천 권한을 금감원 장에게 추가 부여하는 ‘특사경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외국인의 국부탈취·유출행위도 심층조사한다. 외국 감독기관에 조사대상 외국인에 대한 자료나 자금추적 의뢰 및 현지 조사 지원 등을 요청하며,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경우 출금금지를 요청해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



윤석현 신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화해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바이오·제약사의 신약개발·임상시험과 관련된 공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정보 공유를 추진한다. 사업보고서상 신약 기술이전 계약, 연구개발 비용 및 임상진행 단계별 내용 등의 기재 적정성에 대한 심사 강화도 병행한다.

증권방송의 종목 추천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할 예정이다. 증권방송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거나 불공정거래 관여자의 출연 제한 등도 검토된다.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해서는 이력관리를 추진해 상장회사를 이용한 ‘머니게임’ 등은 차단할 계획이다.

조호재 금감원 부원장보는 “사회적 관심사항에 대한 신속한 기획조사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 하고, 불공정거래 감시망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해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Stage 6 大건강종신보험

(무배당, 저해지환급형)

신한내게맞는착한보장보험

(무배당, 무해지환급형)

**신한생명의 따뜻한 보험으로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세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대비해

언제나 당신 곁에는 '신한생명'

가족의 행복을 지켜드립니다

[Stage 6 大건강종신보험(무배당, 저해지환급형) 안내사항] * 이 상품의 저해지환급형(50%형 및 70%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일반형(100%형)의 해지환급금 대비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일반형(100%형)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종신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형태입니다. [신한내게맞는착한보장보험(무배당, 무해지환급형) 안내사항] * 이 상품의 무해지환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해지될 경우에는 일반형 대비 해지환급금이 적은 대신 일반형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정기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형태입니다. [공통 안내사항]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일반)사망보험금은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 * 상기 내용은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업의 심의필 제2018-1539호(2018.4.10.)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보험